

2011. 3. 7 제258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3. 7 제258호

산업·경제

1. 사회적 약자·여성이 운영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뉴욕)

건강·복지

2. 지역도서관 및 시민단체와 치매치료 독서토론 모임 운영 (영국 데번市)
3. ‘都 인정 암 진료 병원’ 확충 (도쿄)

행정·재정

4. 인구 및 세대수 지속적으로 증가 (도쿄)

도시환경

5. 조림지를 자연습지로 복원해 생태통로 확보 (영국 데번市)
6. 도내 최초로 중소기업체와 대형사업자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협정 체결 (도쿄)

도시교통

- 7. 민간단체가 최첨단 자전거도로 지도 개발 (영국 에든버러市)
- 8. 전기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 ‘소스 런던’ 구축 (런던)

도시계획 · 주택

- 9. 피게로아 도로 주변 거리환경 개선 프로젝트 시행 (로스앤젤레스)
 - 10. ‘가장 아름다운 건물외벽’ 공모전을 실시해 도시 이미지 개선 (독일 본市)
-

산 업 · 경 제

1. 사회적 약자·여성이 운영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이 운영하는 민간사업체와 공공부문 간 계약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 프로그램은 소수민족과 여성의 창업·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됨. 그동안 골드만 삭스, IBM 등 11개 대기업이 주관했으나 市는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11년 2월 밝힘.

- 블룸버그 시장 재임기간에 사회적 약자나 여성이 운영하는 민간기업 및 사업장이 47% 가까이 증가함. 市 중소기업서비스국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공공부문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경우 양자 간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 市는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① 중소기업 간 계약 및 협력 노하우 전수, ② 기술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③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④ 사회적 약자 및 여성 기업가 멘토링 제도 등을 추진함. 그동안 市는 사회적 다양성이 도시경제와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 프로그램에 민간부문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함.

(www.scribd.com/doc/37097834/New-York-City-s-Minority-Women-Owned-Business-Enterprise-Program-Fails-to-Meet-Goals)

(www.nyc.gov/cgi-bin/misc/pfprinter.cgi?action=print&sitename=OM&p=1298670701000)

건 강 · 복 지

2. 지역도서관 및 시민단체와 치매치료 독서토론 모임 운영 (영국 데번市)

- 영국 데번市, 런던市 등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도서관이 독서운동 단체의 도움을 받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독서토론 모임을 운영함. 데번에 있는 엑서터(Exeter) 중앙도서관은 독서운동을 벌여온 민간단체인 ‘책임기 운동본부’(The Reader Organization)와 손잡고 2011년 2월 16일부터 총 12회 예정의 독서토론 모임을 엮.
- 치매로 기억력 장애를 겪는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유명 단편 소설이나 시를 읽고, 읽은 내용을 같이 기억해내고 느낌을 나눔. 상호 간에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로 운영되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치매환자가 마음 편히 참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치매환자와 보호자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 런던市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과 해링게이 구립도서관, 자치구(타워햄릿, 윈즈워스, 웨스트민스터 등), 민간단체(유대인센터, 월덤 포레스트 장애인센터 등)가 독서모임을 적극 활용함. 책임기 운동본부는 2009년 4월부터 런던 동부 정신건강 트러스트의 지원을 받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는 성인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독서모임을 운영함.
 - 노숙자 쉼터에서 1명으로 시작했던 독서모임이 입소문을 타고 점점 커지면서 정기 토론모임으로 자리 잡은 성공사례도 있음.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성향이 강함에도 꾸준한 참석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독서토론 모임이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치매 요양병원의 독서모임(출처: 책읽기 운동본부 홈페이지)】

- 독서토론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환자에게 좋은 자극이 됨. 책 내용과 자신의 기억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치매증세를 완화해줌. 책 읽기 운동본부는 치매환자뿐 아니라 다양한 처지에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독서운동을 적극 활용함.
- 독서토론으로 자신감을 되찾아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실업자의 경우 취업 정보를 얻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큼. 독서 모임은 동네 도서관을 거점으로 운영되며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市나 區, 교육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로도 적극 활용됨.

(news.bbc.co.uk/local/devon/hi/people_and_places/newsid_9398000/9398168.stm)

(thereader.org.uk/get-into-reading/london/)

3. ‘都 인정 암 진료 병원’ 확충 (도쿄)

○ 도쿄都는 국가가 지정하는 ‘암 진료 연계 거점병원’ 이외에 자체적으로 국가의 지역 거점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고급진료 기능을 갖춘 ‘都 인정 암 진료 병원’을 선정해 운영함. 이는 都 인정 암 진료 병원 설치요강에 근거함.

- 일본 정부는 2011년 2월 10일 열린 ‘암 진료 연계 거점병원 지정에 관한 검토회’에서 기존 도내 14개 지역 거점병원 이외에 2011년 4월부터 4개 병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도쿄都도 현재 16개 ‘都 인정 암 진료 병원’ 이외에 4월부터 2개 병원을 추가하기로 함.

- 都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정한 거점병원 정비지침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5대 암(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외에 자궁암, 혈액암 등에 대한 치료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都 인정 암 진료 병원’으로 선정함.

· 인정 병원은 고도의 암 치료법 등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상담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됨. 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암환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며 암환자를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함. 인정 병원은 전문가, 유관기관 대표, 환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2/2012i100.htm)

행정 ·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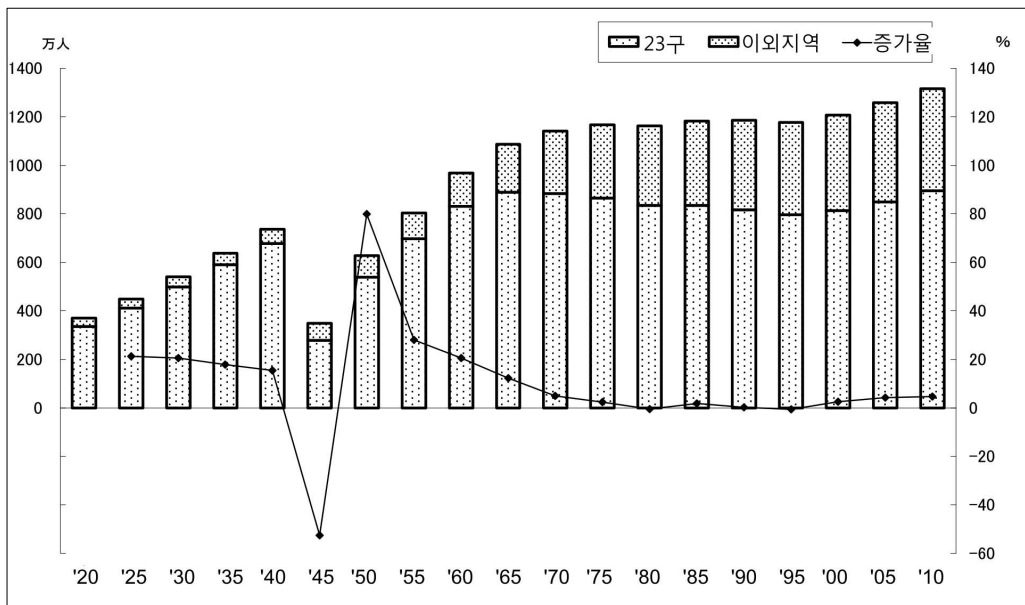
4. 인구 및 세대수 지속적으로 증가 (도쿄)

- 도쿄都는 2010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2011년 2월 25일 발표함. 이번에 발표한 인구 및 세대수 잠정치 결과는 기초자치단체(구·시·정·촌) 등이 제출한 통계표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2011년 10월 발표될 일본 총무성의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이번에는 도내 행정구역별 인구수와 세대수만 집계해 발표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0년 현재 都 인구는 약 1316만 명으로 2005년 조사 때보다 약 59만 명(4.7%)이 증가함.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아다치區(5만 9256명), 고토區(3만 9740명), 세타가야區 순으로 나타났으며 23개 區 중 외곽 주택밀집지역이 이에 해당함.
 - 세대수는 약 640만 가구로 2005년에 비해 약 51만 가구(8.7%)가 증가해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섬. 세대당 인원수는 都 전체로는 2.06명이나 23개 區만 살펴보면 1.97명으로 2명 이하로 떨어짐.
 - 이번 잠정치 결과를 보면 일본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도쿄都는 인구가 늘어 도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도내에서도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와 성격이 비슷한 23개 區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

【도쿄都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인구센서스 결과)】

(단위 : 명, %)

지역	인구				세대수				세대당 인구수
	2010년 조사	2005년 조사	증가 인구수	증감 률	2010년 조사	2005년 조사	증가 세대수	증감 률	
都 전역	13,161,751	12,576,601	585,150	4.65	6,403,219	5,890,792	512,427	8.70	2.06
23개 區	8,949,447	8,489,653	459,794	5.42	4,547,435	4,146,481	400,954	9.67	1.97
市	4,125,792	3,998,901	126,891	3.17	1,821,152	1,710,525	110,627	6.47	2.27
군(郡)	58,719	59,303	-584	-0.98	20,969	20,071	898	4.47	2.80
도서 (島嶼)	27,793	28,744	-951	-3.31	13,663	13,715	-52	-0.38	2.03



【도쿄都 인구변화 추이(인구센서스 결과)】

(www.toukei.metro.tokyo.jp/kokusei/2010/kd10s-index.htm)

도 시 환 경

5. 조림지를 자연습지로 복원해 생태통로 확보 (영국 데번市)

○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를 주로 공급하던 묘목장을 자연습지로 복원하는 사업이 주목을 받음.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데번市는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휴양지로 유명함. 최근 市는 묘목장으로 활용되던 약 3만 5000m² 규모의 숲을 대상으로 인근 녹지와 연계해 생태통로 복원사업을 펼침.

- 묘목으로 상업화하기에는 너무 커버려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민간 소유 농장을 사들여 나무를 없애고 이 지역 고유의 자연상태인 초지(草地)로 복원함. 조성된 초지는 인근 숲 및 평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생태통로가 됨. 보전이 필요한 동물이 서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제공함. 개발 이전 자연적으로 형성된 초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염습지(鹽濕地)형 초지로서 데번 북서부와 콘월 북동부 지역에서만 존재함.



· 조림지(造林地) 제거 및 자연습지 복원 사업(사진 참조)은 2011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임. 이 사업은 습지 복원 7개년 사업 대상지역

인근에 위치한 개인 소유 묘목장을 대상으로 함. 습지 복원 7개년 사업은 市가 지방환경청, 유관 기업, 지역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큘 자연보전지구’(Culm Natural Area) 내 일부 부지를 복원·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민간이 소유한 묘목장과 농장부지를 사들여서 인근 자연습지 복원 사업 대상지역과 연결시키려는 발상은 기존 계획에서 정한 복원 대상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작은 규모지만 지속적으로 습지를 확장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www.devonwildlifetrust.org/view-news/2011/01/31/Culm+restoration+project'E2'80'99s+Christmas+tree+clearance+begins/)

(news.bbc.co.uk/local/devon/hi/people_and_places/nature/newsid_9385000/9385268.stm)

도시농장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미국 피츠버그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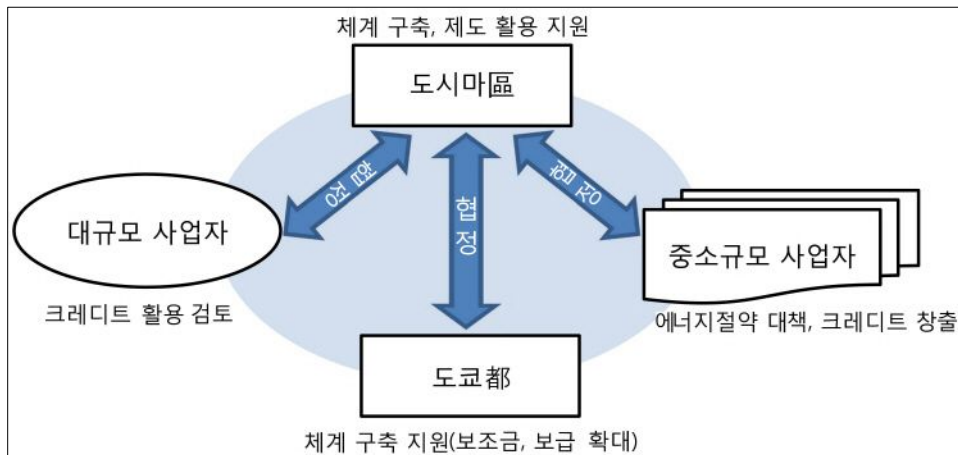
- 미국 피츠버그市는 2011년 2월 말 도시 내 농업활동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市는 꿀벌이나 닭을 기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건강, 식품 안전, 녹지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 가이드라인은 농장의 최소면적 및 이격거리, 퇴비 관리 및 악취 예방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 양봉도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양봉 최소규모를 제시함. 말이나 돼지 사육은 금지되며 재배된 농작물은 거래가 가능함. 市는 버려진 공간을 녹지나 공원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시 내 농작물 재배가 이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post-gazette.com/pg/11039/1123852-53.stm)

6. 도내 최초로 중소기업체와 대형사업자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협정 체결 (도쿄)

○ 도쿄도에서는 ‘도내 중소 크레딧’ 방식을 활용해 도시마區 내 중소기업체와 대형사업자 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협정이 2011년 2월 24일 체결됨. 이 협정은 사업자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공동 모색하는 도내 최초의 시도이며, 都도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협정에 의거해 각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마區에 있는 4개 중소기업체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해 향후 都의 ‘총량 감축 의무화 및 배출량 거래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 도내 중소 크레딧 창출에 노력함. 대형사업자인 (주)선샤인 시티는 중소기업체가 창출한 도내 중소 크레딧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협정 체계】

- 도시마區는 중소기업체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원하고 크레딧 창출을 촉진하며 크레딧 활용에 대한 대형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내 중소 크레딧 활용 촉진계획’ 등을 수립함. 중소기업체가 창

출한 크레딧 정보를 대규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지원함. 都는 도시마區의 크레딧 활용 촉진체계 구축에 협력하고 이를 지원함. 아울러 이와 유사한 체계를 다른 자치단체에 보급해 나갈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2/2012p600.htm)

매년 3월과 9월에 자살 예방 캠페인 실시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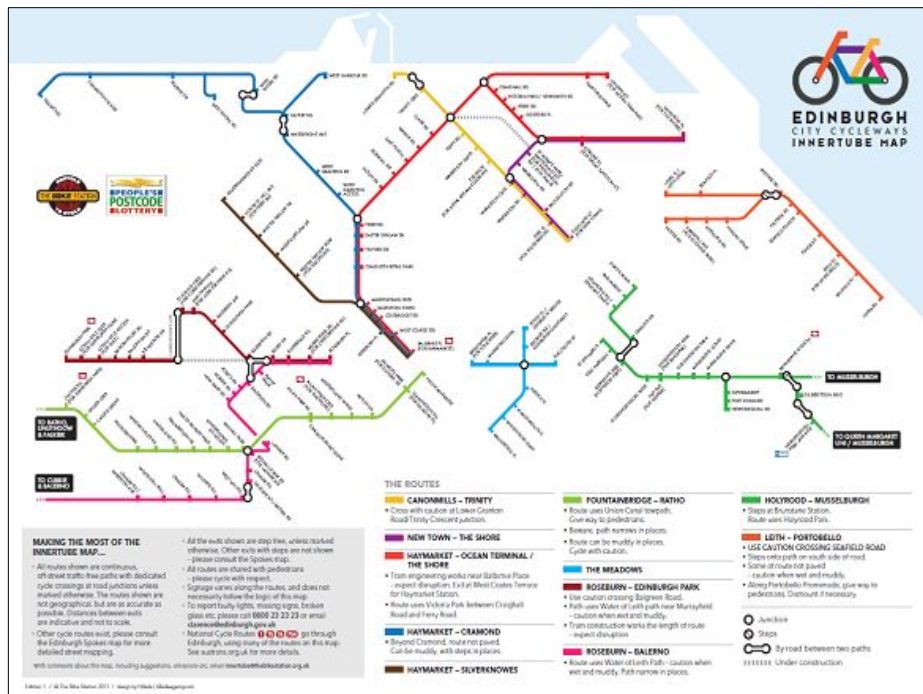
- 도쿄都는 매년 3월과 9월을 자살방지 대책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임. 都는 자살을 원하거나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전화 및 대면상담)과 거리 캠페인을 실시함.
- 3월에 실시하는 전화상담으로는 ① 도쿄 자살 상담전화: 마음과 생명의 안심라인(3월 7일~13일), ② 자살 예방 생명의 전화(3월 10일~11일), ③ 48시간 특별상담(3월 12일~13일), ④ 유족을 위한 전화상담(3월 7일~13일), ⑤ 다중 채무자를 위한 상담(3월 7일~8일)이 있음. 대면상담은 '都 마음과 생명의 종합상담회'에서 3월 14일~15일 무료로 진행함.
- 都는 각종 상담창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신주쿠역 남쪽 출구에서 배포하는 거리 캠페인을 3월 1일 아침에 실시함. 3월 5일에는 都 후원으로 생명 지원 심포지엄을 개최해 자살방지 대책 등을 논의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1/02/2012o700.htm)

도 시 교 통

7. 민간단체가 최첨단 자전거도로 지도 개발 (영국 에든버러市)

- 영국 에든버러市에 있는 민간단체가 최첨단 자전거도로 지도를 제작해 뜨거운 호응을 얻음. 최근에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방정부와 함께 자전거 시설 개선에도 참여함. 이 민간단체는 ‘바이크 스테이션’(Bike Station)과 ‘에든버러-로디언 그린스페이스 트러스트’(Edinburgh and Lothian Greenspace Trust)임.



【에든버러 자전거도로 지도(출처: 바이크 스테이션 홈페이지)】

- 두 단체는 도심이 골목길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이용하지 않는 철길이 많은 도시 특성에 착안해 차도를 통하지 않고도 자전거를 안전하

게 탈 수 있는 동네 길과 철도변 도로를 조사함. 이후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런던 지하철노선도 디자인을 길 정보에 적용해 참신한 자전거 도로 지도(Inner Tube Map)를 완성함. 이는 에든버러의 오랜 전통에 시민 참여와 온라인문화를 결합시킨 시도임.

- 에든버러에서 자전거도로 지도가 처음 제작된 때는 19세기임. 이후 1980년대 들어 자전거에 대한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에든버러市에서는 1985년 지도 제작에 착수함. 市는 이 지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
- 市가 만든 지도는 자전거 이용자만을 위해 제작되어 이동경로 정보가 주로 실리는 데 반해 민간단체는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도보여행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골목길 지도도 제작함. 런던 지하철노선도 디자인을 활용해 자전거나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듦. 이 지도는 트위터 등 마이크로블로그 이용자가 계속 업데이트함. 트위터를 활용해 어떤 골목길을 이용해 어떤 경로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벌임.
-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업이 계속 진화해 민관 파트너십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임. 최근 복권기금 9만 8000파운드(약 1억 7900만원)를 지원받아 市와 민간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市 전체의 자전거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함. 이 사업은 2011년 4월 시작하며 시민 스스로가 보전해야 할 골목길을 발굴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길을 제안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www.bbc.co.uk/news/uk-scotland-edinburgh-east-fife-12578308)

(www.thebikestation.org.uk/innertube-map/)

8. 전기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 ‘소스 런던’ 구축 (런던)

- 런던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인 ‘소스 런던’(Source London)을 구축하고 이를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가 운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함. 소스 런던 네트워크에 의해 설치되는 1300개 충전소는 더 많은 사람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게 됨. 충전소 네트워크는 런던을 유럽의 전기자동차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조성됨.
- 런던 교통국은 2011년 봄부터 40여 개 협력업체와 함께 런던 전역에 충전소를 설치함. 이에 따라 런던 시민은 앞으로 ‘소스 런던’이라는 상표가 붙은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됨. 협력업체에는 세인즈베리 슈퍼마켓, 아스다 슈퍼마켓, 쇼핑센터, 런던 내 지자체, 에너지회사 등이 포함됨.
 - 市는 2013년까지 1300개 충전소를 공공건물과 거리에 설치할 계획임. 이 목표가 달성되면 런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주유소보다 더 많게 됨. 이렇게 되면 운전자들이 전기자동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매년 100파운드(약 18만 원)의 회비만 내면 모든 충전소에서 무료로 충전할 수 있음.
- 市는 전기자동차를 대중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충전소 부족이라고 보고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확충에 노력해왔음. 이용 활성화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기술 발전을 유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공기를 맑게 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됨.
 - 市는 중앙정부가 전기자동차 구입자에게 지원하는 5000파운드(약 900만 원)의 보조금도 전기자동차 대중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전기자동차는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디젤과 휘발유에 비해 40%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10만 대의 전기자동차가 도입되도록 힘쓸 계획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builds-source-power-electric-drivers)

노숙자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 스티커 배부 예정 (미국 산타클라라 카운티)

-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구당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카운티임. 이곳에서 2011년 4월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노숙자에게 배부할 예정임.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노숙자에 한해 벨리 지역에서 경전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공함. 스티커는 최대 1850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약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양임. 필요한 경우 추가 신청도 가능함.
-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스티커가 노숙자의 병원 진료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전체 약 7200명의 노숙자 중 35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매년 11만 1000달러(약 1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www.good.is/post/idea-free-public-transportation-for-homeless-people/)

도시 계획 · 주택

9. 피게로아 도로 주변 거리환경 개선 프로젝트 시행 (로스앤젤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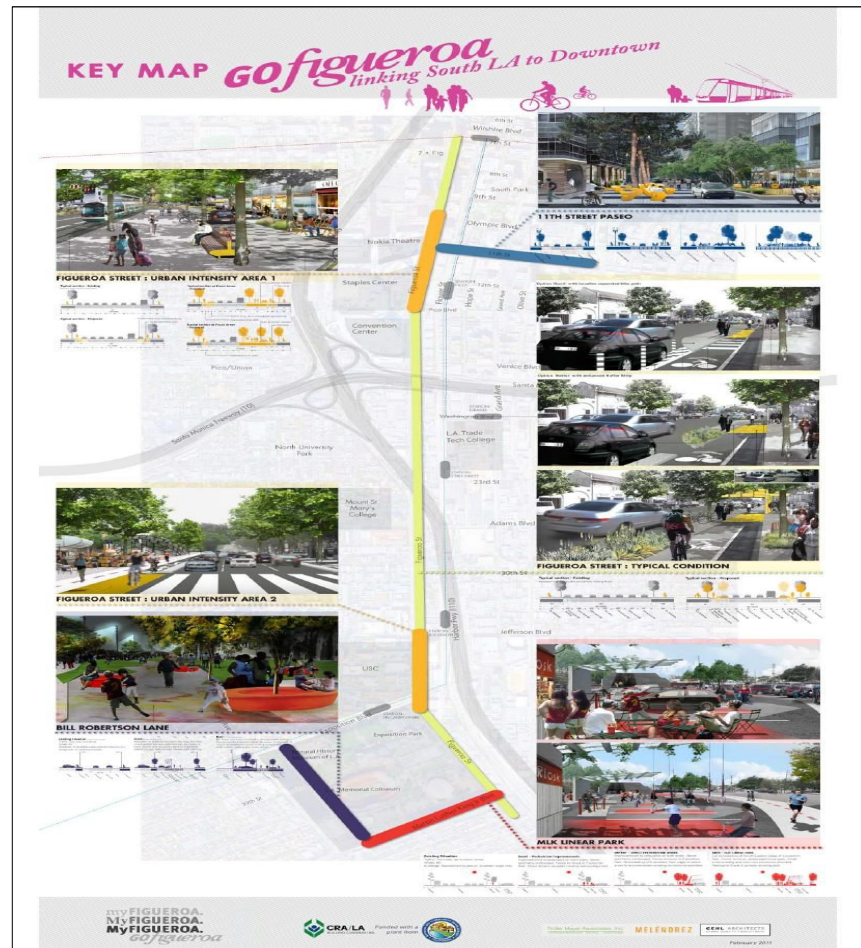
○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도시재개발국은 피게로아 도로 3마일(약 4.8km) 구간의 거리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워크숍을 2011년 2월 개최함.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시재개발국 담당자, 코펜하겐 설계 회사 건축가, 조경디자인 컨설턴트가 모여 그간의 설문조사와 이전 워크숍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새 설계안을 두고 토론을 벌임(그림 참조).

- ‘Figueroa Corridor Streetscape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지가 있는 South Park 지역과 다운타운을 잇는 피게로아 도로 3마일(약 4.8km) 구간의 회랑지대에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들고 가로계획을 새롭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음.

- 지금까지 논의된 아이디어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자, 보행자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7가(街)와 Exposition Park 구간 양쪽 방향으로 차도와 인도 사이에 안전 바를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블록 중간에 교차로를 설치하며, 인도를 넓혀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안임.

- 피게로아 도로 회랑지대는 South Park 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 뿐 아니라 남가주대학 캠퍼스와 Exposition Park, 컨벤션센터, 노키아극장 등을 지나 다운타운 북쪽에 이름.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

면 저소득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줌. 군데군데 조성된 작은 공원이나 잘 꾸며진 가로공간은 학생이나 주민뿐 아니라 스포츠팬이나 여행객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됨.



- 대부분의 주민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사람들이 몰리면 주차난과 차량정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민도 있음. 이에 대해 조경디자인 컨설턴트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어도 주변에 있는 사설 주차장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市 도시재개발국은 이 프로젝트에 300만 달러(약 33억 5600만 원) 이상 투자해 2013년 말에 완료할 예정임. 만일 2013년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주택개발국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2억 3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됨.

(<http://myfigueroa.com/>)

(www.good.is/post/better-designed-streets-for-walkers-and-bikers-are-coming-to-l-a/)

(www.ladowntownnews.com/articles/2011/02/04/news/doc4d4c45b466d90881601364.txt)

‘패션 인큐베이터 사업’ 으로 새로운 디자이너 발굴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메이시 백화점과 함께 지역 내 신입 디자이너 6명에게 경제, 회계, 마케팅, 판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를 연결해 주는 ‘패션 인큐베이터 사업’을 올해로 4회째 시행 중임.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려는 신참 디자이너가 지원할 수 있으며 1년간 디자이너 교육과 함께 사무실, 쇼룸 등을 제공받음.
- 다운타운에 위치한 메이시 백화점은 교육과정을 마친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발표하는 패션쇼를 열고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2011년 3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제공함. 패션쇼는 시민에게 사업성과를 알리고 지역 출신 디자이너를 발굴해 그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www.chicagofashionincubator.org/)

(www.shop900.com/events/302)

10. ‘가장 아름다운 건물외벽’ 공모전을 실시해 도시 이미지 개선 (독일 본市)

- 독일 본市에는 보존가치가 큰 건물외벽이 많으며 이 외벽들은 시대별로 고유한 역사성을 보여줌.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특색 있게 보수해 ‘가장 아름다운 건물외관’ 공모전에 매년 참가하고 심사위원은 이들 건물의 앞면을 중심으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함.
- 市는 이 공모전에 민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도시 이미지와 역사 보존에 기여하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 수상자에게는 최대 1000유로(약 160만 원)의 상금과 공증서를 수여함. 수상작은 건축가, 미술가, 市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함.
 - 1972년부터 4000개에 달하는 건물이 공모전에 참가하였고 1000개가 넘는 건물이 상을 받음. 市는 공모전을 위해 쾰른/본 슈파카세 은행과 본/라인-지크 주택토지조합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음. 市는 이들 기관과 함께 과거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양식에 부합하면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주민의 노력을 지원해옴.
 - 市는 공모전으로 고건물의 아름다움도 재발견함. 18세기 목골(木骨) 구조 주택, 뾰족한 합각(合閣) 지붕으로 된 건물, 19세기 건물 외벽과 기둥·장식 등을 볼 수 있음. 이처럼 공모전은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줌. 특히 市 북부와 남부 시가지나 고데스베르크 빌라지구가 대표적임.
- 특색 있는 건물외벽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음.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수가 완료된 건물에 한해 매년 1월 31일까지 참가를 신청할 수 있음.



【1900년대 개인 빌라】

- 77개 건물이 참가한 2010년 공모전에서는 1등에 각각 1000유로 (약 160만 원), 2등에 각각 750유로(약 116만 원), 3등에 각각 500유로(약 78만 원)를 수여함.





【2010년 공모전에서 1위를 수상한 건물외벽】

(www.bonn.de/umwelt_gesundheit_planen_bauen_wohnen/fassadenwettbewerb/index.html?lang=de)

조직 및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일본 오사카府)

- 일본 오사카府는 조직 및 행정체제 개편안을 2011년 2월 14일 발표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함.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오오테마에 및 모리노미야 지역의 마을 만들기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해 추진하고, ② 아동학대 방지대책 등 어린이 안전 분야에 21명의 인력을 증원함. ③ 오사카박물관 구상, 녹색성장 촉진구역 중점 녹화사업, 나카노섬 숲 조성 등 도시매력 창조와 녹색성장 분야에 20명의 인력을 늘림.

(www.pref.osaka.jp/hodo/index.php?site=fumin&pageld=6111)